

특별선교주일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 성찬주일

설교 자료



본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세계성찬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기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각 교회 및 예배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당시 케노시스(kenosis)로 알려졌던 찬송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혜택과 특권을 버리고 가장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연약한 아기로서의 삶의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분의 삶이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예수님은 사회 가장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생을 가진 것이 없고 또 사회적 정죄의 상황에 있었던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서로 하나 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을 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분열이 있는

“...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단지 ‘친하게 지내기 위해’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것만 같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단지 “친하게 지내기 위해”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성찬주일을 지키며 주님의 식탁에 함께 모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굳건히 하나 됩니다.

성찬을 받으시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도구가 주어져 있습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와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게 하는 일을 후원함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정신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업에도 힘썼습니다. 내전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했고, 이제는 전문적 영역에서 이 같은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조르즈는 세계선교부가 제공한 세계성찬주일 장학금의 도움으로 공공 교육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세계성찬주일 특별 헌금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다른 연합감리교인들의 예물과 합쳐져 젊은 지도자들이 개인적 및 전문적 영역에서 최고의 모습을 갖춘 이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투자하며, 이는 단지 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더 큰 선을 위한 기여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우리 삶에 충만케 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과 함께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나를 비워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자기 돌봄이나 건강한 경계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새



모잠비크의 세계성찬주일 장학생 조르즈 사이테와 그의 아내 산드라. 사진 제공: 조르즈 사이테

조르즈 사이테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남부 모잠비크의 연합감리교회 캄바인미션스테이션에서 자랐습니다.

조르즈는 그의 아버지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앗아 갔던 내전 중에 태어났습니다. 고생 중에 일곱 자녀를 돌보았던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조르즈는 8살 때 가족을 돕기 위해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캄바인의 교회에서 얻은 격려를 통해 학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관계에 마음을 열고, 제자 삼기를 우선순위에 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우리 영혼이 의도적으로 재정렬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제자도를 실천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비워냅니다. 우리의 내어드림 가운데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들어오고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립보서 2:9~10)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향한 무릎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적에 열린 마음을 품으십시오. 감사에 열린 마음을 품고, 우리를 채우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생명을 주는 사랑에 열린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빌립보서 2:9~10

